

2008 한국 컴퓨터그래픽스 대상

신성용 (KAIST 교수)



한국의 컴퓨터 그래픽스는 짧은 역사에 비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와 저변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학문 발전의 체재를 갖추어 가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발전과 학회의 체재화에 초창기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마르지 않는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한국 컴퓨터그래픽스 학계를 건인해 온 신성용 교수를 한국 컴퓨터그래픽스 학회가 수여하는 한국 컴퓨터그래픽스 대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한다.

신성용 교수의 연구 분야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상 분석 및 합성, 계산기하학 문제 등을 다루어 왔다. 계산 기하학이라는 견고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건설한 이론적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 성과를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실용화에 앞장 서 왔다. 특히, KBS와 공동으로 방송용 가상캐릭터 제어 기술을 개발하여 TV 어린이 프로그램의 가상 캐릭터 "팡팡"과 2000년 실시간 총선 실황방송의 가상 리포터 "알리양"을 창조하였다.

신성용 교수는 연구뿐만 아니라 학술활동에 있어서도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3년 한국 컴퓨터그래픽스 학회의 창설을 주도하였고, 이후 6년 간 학회 부회장으로 재임하며 학회의 안정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1993년 Kunii 교수(당시 동경대 재임), 김명수 교수(당시 포항공대 재임, 현 서울대 교수)와 함께 창설한 Pacific Graphics는 이후 성장을 거듭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고 그래픽스 학술회의로 발돋움하고 있다. 현재는 IEEE TVCG, Graphical Models, The Visual Computer, Computer Animation and Virtual Worlds 등 4개 국제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성용 교수가 보여준 학문적 비전과 열정, 그에 대한 헌신과 성취는 한국 컴퓨터그래픽스 분야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러한 업적에 존경을 담아 신성용 교수에게 한국 컴퓨터그래픽스 대상의 자랑스러운 첫 번째 상을 수여한다.